

# 병중(病中) 정서를 드러내는 서거정 한시의 특징:

노년기 작품을 중심으로

김영훈\*

## I. 서론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조선 전기의 대표적 관료문인이다. 그는 25세(세종 26년, 1444)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집현전 박사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대사헌, 형조판서, 한성판윤, 이조판서 등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고 만년(晩年)에는 좌찬성에 올랐다. 특히 1467년에는 형조판서로서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와 예문관 대제학을 겸직하여, 이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22년간 문형(文衡)을 맡았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관찬서 편찬을 주도하여 왕명을 받들어 『동문선(東文選)』을 편찬하는데 깊이 관여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사가집(四佳集)』, 『동인시화(東人詩話)』, 『필원잡기(筆苑雜記)』,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 등의 저술을 남겼다.

이러한 서거정의 저술 중 개인 문집인 『사가집』은 시집 50여 권과 문집 20여 권의 방대한 분량이었으나, 상당 부분이 유실되어 현전하는 것은 원래의 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아 있는 시가 5,000수를 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서거정의 한시를 살펴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사가집』<sup>1)</sup>의 시제(詩題) 속에 간간히 나타나는 연기(年紀)를 추적한 결과 22세부터 40세 이전의 작품은 2~3권 분량에 지나지 않아 청년 시절 서거정의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재학

1) 이하 서거정 시집의 인용은 한국문집총간 제10·11권에 실린 『사가집』을 따른다.

작품은 볼 수가 없다.<sup>2)</sup> 따라서 『사가집』 속의 시들은 대부분 서거정의 중년기와 노년기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방대한 서거정의 한시 가운데 노년기 작품을 대상으로 늙고 병들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누구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 따라서 노병(老病)을 주제로 하는 문학 작품은 작가 개인의 정서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와 공유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독자의 공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문학작품으로서의 한시(漢詩)는 현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한시의 제재(題材)가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것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병(老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이고, 또 이를 통해서 작가 개인의 진솔한 내면세계가 표출된다는 점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판단된다.

기존에 서거정의 한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응제시, 수창시, 영물시 등의 분류를 통해 작품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분류에 의한 서거정 한시 연구는 관각 문인의 대가로서 서거정의 면모를 파악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지만, 이러한 시들에 드러나지 않는 서거정의 내면세계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병중 정서를 드러낸 서거정 한시의 특징을 노년기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늙고 병들어’ 대해 서거정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서거정의 한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 ‘늙고 병들어’를 주제로 다룬 것은 없다. 다만 병중 정서를 드러낸 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단 한 편의 학술지 논문이 있을 뿐이다.<sup>3)</sup> 그러나 이 논문은 병중 정서를 드러낸 시의 특징을 규명한 것이 아니라 병을 소재로 한 한시를 통해서 서거정이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은 서거정이 앓았던 질

2) 민병수, 「서거정의 시세계」, 『서거정 문학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p.181.

3) 강민구, 「조선 관료문인의 직무스트레스와 반응의 문학적 표출양상 - 서거정의 경우」, 『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병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의 병중 정서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한편 서거정의 ‘茶詩’를 대상으로 한 연구<sup>4)</sup>에서는 질병 치료 수단으로서의 차가 사용되는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병중 정서의 일면을 보여 준다. 또한 서거정의 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몇 편의 학위논문<sup>5)</sup>에서는 전원예의 동경을 드러낸 시를 다룸으로써 참고가 된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의 논의를 참고하여 병중 정서를 드러낸 서거정 한시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고독감의 표출

서거정의 시 중 27%가 차운시(次韻詩)·화운시(和韻詩)인데,<sup>6)</sup> 이와 같이 동료 문인들과 수창(酬唱)한 시는 대부분 그와 함께 과거에 급제한 동년(同年)과 주고받은 시이다. 따라서 서거정에게 있어서 동년의 벗들은 큰 의미를 지닌다. 서거정이 출사하기 전에 치른 1438년의 생원시와 진사시, 1444년의 문과 시험 등에서 수많은 동년이 생겼다. 또한 서거정의 1457년의 복시(覆試)에도 급제하여 동년의 벗이 무척 많았다. 결국 그의 시문집에 나오는 비슷한 동년배는 어떻게든 동년으로 연결되지 않은 예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sup>7)</sup> 그런데 서거정이 노년기에 이르면 서거정과 시를 주고받았던 동년들이 하나 둘 사망하여, 그가 고독감을 느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서거정이 69세(1488)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sup>8)</sup> 다음 작품을 보자.

4) 이민용, 「서거정 茶詩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1.

5) 최명규, 「서거정과 그의 한시 연구 - 절구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1.

이종건, 「서거정 시문학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4.

박성순, 「사가 서거정의 시문학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9.

6) 송희준, 「사가집 해제」, 『국역 사가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4, p.8.

7) 이종목, 「서거정의 삶과 문학 활동」, 『서거정 문학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p.81.

8) 「시집」 권 51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시가 무신년(1488)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

그 당시 동방급제자 삼십삼 인 가운데  
삼십이 인은 솔 밑의 티끌이 되어 버렸고  
백발의 늙은 물건 나만이 살아남아서  
옛일을 회상하니 남몰래 가슴이 짙하네

當年金榜卅三人  
卅二人爲松下塵  
白髮唯餘老物在  
感時懷舊暗悲辛

〈有感〉(「시집」 권 51)<sup>9)</sup>

33인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444년의 문과 시험에 함께 급제 한 동년을 회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松下塵은 죽은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이백의 <대주억하감(對酒憶賀監)> 시에서 나온 단어이다. 동년들은 모두 사망하였는데 자신만 살아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벗들은 모두 사망하였는데 자신 또한 병들어 죽음을 바라보는 상황이 되자, 서거정은 병을 앓으면서 극심한 고독감을 토로한다. 다음 작품을 보자.

맑은 가을이라 긴 밤이 처량쿠려  
시서는 일생 백 년의 마음이로다  
쓸렁한 그림자는 등잔 앞의 칼이요  
찬 소리는 달밤의 다듬이질 소릴세  
친구들은 이제 적막하기만 한데  
늙고 병듸은 둘이 함께 침범하네  
홀로 앉았자니 함께할 사람 없어  
차 사발을 스스로 따라 마시노라

清秋悲永夜  
時序百年心  
冷影燈前劍  
寒聲月下砧  
交遊今寂寞  
老病兩侵尋  
獨坐無人共  
茶甌口自斟

〈夜咏〉(「시집」 권 40)

서거정이 63세(1482)에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수련(首聯)에서는 ‘맑은 가을에 긴 밤이 슬프다’라고 한다. 만물이 쇠락하는 계절인 가을은 서거정 또한 병이 들어 몸이 쇠락하였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시서백년심(時序百年心)은 두보(杜甫)의 <춘일강촌(春日江村)> 시의 한 구절을 그대로 끌어 썼다. ‘백년’이 주는 어감을 통해 그가 인생의 만년에 이르렀음을 느끼게 한다. 함련(頷聯)에서는 ‘冷, 寒’ 등 차가움을 나타내는 시어와 ‘燈前, 月下’

고 있고, 서거정이 1488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 시 또한 1488년에 지어졌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이하에 인용되는 시 또한 이와 같이 대략적으로 연기(年紀)를 추정할 것임을 밝혀 둔다.

9) 이하 한시 번역은 『국역 사가집 1~10』(민족문화추진회, 2004)을 참고하였다.

등 밤을 나타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차가운 가을밤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거정은 늙고 병들었는데 교유할 친구마저 없어서 고독한 자신의 심정을 표출한다. 그리고 차(茶)를 벗 삼아 스스로 위안을 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시의 기본인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성을 취하면서 시간적·계절적 배경과 병중(病中)의 고독한 정서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다.

서거정은 만년(晩年)에 병을 앓으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 병중의 생활을 소재로 하는 시들은 대부분 한밤중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sup>10)</sup> 위의 작품과 동일한 제목의 다음 작품을 보자.

연래엔 병이 많아 갑질이나 청수해진 채	年來多病倍清癯
등잔 앞에 앉았으니 그림자도 외로워라	坐對青燈隻影孤
우수수 바람 소리는 소나무 정원에 차갑고	松院寒聲風颯爽
죽창의 그림자 성기어라 달빛은 희미하네	竹窓疎影月模糊
한가히 짧은 자루 용염주를 휘두르고	閑揮短柄龍髯塵
작미로에 좋은 향을 사르기도 하면서	爲炷奇香鵲尾爐
몸 밖의 무궁한 일들을 모두 털어 버리고	擺落無窮身外事
때로는 말없이 중의 가부좌나 배우노라	有時不語學僧趺

〈夜詠〉(「시집」 권 50)

수련에서 서거정은 병으로 인해서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을 서술한다. 그리고 등불 앞에 앉아 있는데 그림자가 벽에 비친 것을 보고 고독함을 느낀다. 함련에서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독함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경련(頸聯)과 미련(尾聯)에서는 이러한 병중의 고독함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드러난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세계로 침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련과 미련의 안쪽과 바깥쪽이 각각 대응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시적 전개 의 기발함을 느낄 수 있다. 경련의 용염주는 먼지떨이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미련의 ‘파락(擺落)’, 즉 ‘털어 없애다’라는 시어와 대응이 된다. 또한 경련에서 향(香)을 사른다고 한 것은 절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미련에서의 ‘승부(僧趺)’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와 같은 독특한 시적 구조를 통

10) 강민구, 앞의 논문, p.280.

해서 ‘몸 밖의 일(身外事)’을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향이 타오르는 가운데 가 부좌를 하면서 병중의 고독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서거정의 내면심리를 효과적으로 표출하였다.

위의 시에서 드러나듯이, 서거정은 병중의 고독함을 자신의 내면세계로 침잠하는 것으로 극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손님을 거부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63세(1482)경에 지은 시에서는<sup>11)</sup> “게으르고 병들어 작은 집에 쓰러져 누워서, 싫다건 말건 손 피하여 응접하지 않노라.(懶病頹然臥小軒, 從嗔諱客不應門)”라고 하였다. 또 69세(1488)경에 지은 시에서는<sup>12)</sup> “병이 많아 손 맞기 어려움을 스스로 알기에, 손이 와서 문 두드리며 불러도 대답 않노라.(自知多病防趨拜, 客至敲門喚不應)”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플 때에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은 법이다. 그러한 서거정의 모습이 드러난 다음 작품을 보자.

두어 폭 병풍 앞에 한 등잔불을 켜놓고  
와상 기대앉으니 고독하기 승려 같네  
때로 아내와 마주해 얘기를 나누노라면  
두 귀밑 쪽대강이에 눈발이 만 층일세

數疊屏風一盞燈  
小牀扶坐兀如僧  
細君相對時相語  
雙鬢刁騷雪萬層

(病中夜吟三首)(「시집」 권 41)

이 시는 서거정이 63세(1482)경에 지은 시로, 3수의 연작시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이다. 앞에서 언급한 시들과 마찬가지로 시간적 배경은 밤이다. 병중(病中)에 잠들지 못하고 사랑방에서 침상에 기대어 앉으니 고독하기 그지 없다. 그래서 고독함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안방에 있던 부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눈다. ‘세군(細君)’이란 말은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한(漢)나라 때 동방삭(東方朔)이 그의 아내를 세군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 동방삭은 아내를 몹시 사랑한 인물이었는데,<sup>13)</sup> 서거정 또한 ‘세군’이라는 표현을 통해

11) 〈卽事〉(「시집」 권 42).

12) 〈攤飯〉(「시집」 권 52).

13) 동방삭은 황제가 내린 하서품을 조칙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가져간 후, 황제가 이를 질책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귀하하여 부인에게 주었으니, 또 얼마나 인자한가!(歸遺細君, 又何仁也!)”

아내를 몹시 사랑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병중의 고독함을 달래려는 것이다. 그리고 하얗게 머리가 센 아내를 보면서 동병상련(同病相憐)을 느끼고 있다.

### Ⅲ. 시와 술에의 탐닉

서거정은 젊은 시절부터 시(詩)와 술을 무척 좋아하였다. 그가 젊은 시기에 쓴 시에서는<sup>14)</sup> “병 끝에 곡식잡고 어찌된 일인가 물어보니, 재앙이 시마와 주마에 있다 하네.(病餘握粟問如何, 崇在詩魔與酒魔)”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서거정은 자신이 병이 든 것조차 시와 술 때문으로 판단하였다.<sup>15)</sup> 이러한 모습은 노년기에도 변하지 않아서, 병중(病中)에 시주(詩酒)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이는 작품이 많다. 다음 작품을 보자.

의원은 나더러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하고	醫士勸吾休飲酒
유자는 내가 시 탐닉함을 업신여기는데	儒家欺我酷耽詩
오늘 아침에 파계를 하고 도리어 웃음 짓노니	今朝破戒翻成笑
나도 모르게 술에 취하고 시에 미쳐 버렸네	醉酒顛詩自不知
	〈病後戲作〉(「시집」 권 52)

이 시는 서거정이 죽음을 눈앞에 둔 69세(1488)에 지은 시이다. 이 시기에 서거정은 기존에 앓던 소갈병(消渴病)에 더하여 다리가 불편해지는 등<sup>16)</sup> 병이 더욱 심해져서, 스스로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을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정신력을 소모하는 자신의 모습을 ‘파계(破戒)’라고 표현한 점이 참신하다. 그리고 중병에 걸린 환자라면 술을 마신

14) 〈移病〉(「시집」 권 2).

15) 이종묵, 앞의 논문, p.77.

16) 〈足疾〉(「시집」 권 51)에서 “근래엔 다리가 아파 이미 형체를 잊었지만, 때론 비틀거리며 지팡이를 끌고도 다니네.(年來病躓已忘形, 時復蹒跚曳杖行)”라고 하였다.

것을 후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리어[翻]’ 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술을 즐겼는지 느낄 수 있다. 한편, 서거정은 자신이 병중에서도 시와 술을 즐기는 모습을 다양한 고사(故事)를 활용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다음 작품을 보자.

쉴 새 없이 흐르는 세월 쫓아가기 어려워라	流光冉冉去難追
만년의 노쇠한 몸골이 예전과 다르구려	晚節衰遲異昔時
사마는 가련해라 소갈증을 많이 앓았는데	司馬可憐多病渴
두랑은 또한 서치가 되었음을 어찌할꼬	竇郎其奈坐書癡
비록 마냥 가득 찬 북해의 술동이는 없지만	雖無北海樽長滿
절로 남산의 시구는 혹 뛰어난 것도 있다오	自有南山句或奇
번화함을 싫어하고 한적함을 좋아하노니	頗厭繁華愛閑寂
이 마음을 응당 노창만이 알고 있겠지	此心應獨老蒼知

〈閑寂〉(「시집」 권 51)

수련에서는 세월은 쉴 새 없이 흐르는데 자신은 늙고 병들어 세월을 쫓아가기 힘들음을 토로한다. 함련에서는 사마상여(司馬相如)와 두위(竇威)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사마상여는 한(漢) 나라의 문장가로서 소갈병을 앓았는데 서거정 또한 소갈병을 앓았으므로 자신을 사마상여에 비유한 것이다. 사마상여에 대한 언급은 서거정이 소갈병을 언급한 대부분의 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두위는 당나라의 문인으로서 문사(文史)에 몰두하여 그의 형제들이 그를 ‘서치(書癡)’라 하였다고 한다. 서거정 한시의 곳곳에 드러나는 역사에 대한 지식과 당·송대 유명 시인의 구절은 그가 과연 ‘책 바보’라 불릴 만함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경련은 ‘無와 有’, ‘北海와 南山’의 대구가 잘 이루어져 있다. 북해는 후한(後漢)의 학자인 공융(孔融)을 가리키는데, 그가 술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서거정이 북해를 인용한 것이다. ‘남산의 시구(南山句)’는 도연명(陶淵明)의 〈음주(飲酒)〉 시에서 유래한 말이다.<sup>17)</sup> 결국 경련은 술을 마시는 가운데 시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미련에서는 번화함을 싫어하고 한적함을 좋

17)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따고, 하염없이 남산을 바라보노라.(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

아한다고 함으로써, 앞 장(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홀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서거정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

서거정이 병중에 시와 술에 탐닉한 것은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였다. 다음 작품을 보자.

그윽한 삶의 정취를 꽤나 얻어서	頗得幽居趣
속세의 마음을 완전히 버리었네	全拋塵世心
강산은 병든 눈의 구경거리고요	江山供病眼
화죽은 한가한 읊조림에 부쳤노라	花竹屬閑吟
시를 즐겨 읊는 버릇에 빠졌거니	正坐耽詩癖
음주의 경계는 정말 짜증 나고말고	堪噉戒酒箴
아무도 와서 함께 마실 사람 없어	無人來共飲
홀로 벽통주 좋아해 따라 마시네	獨愛碧筒斟

〈幽居獨酌筒杯〉(「시집」 권 51)

서거정이 69세(1488)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서거정은 광주 일대에 2개의 농장(광진, 몽촌)을 소유하고 있었는데,<sup>18)</sup> 노년기에 요양을 목적으로 별서(別墅)에 내려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수련에서는 ‘유거(幽居)’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별서에서의 한적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서거정은 60대 초반부터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음을 호소하고 있는데,<sup>19)</sup> 강산의 특트인 전경을 보고 안질(眼疾)이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듯한 느낌을 표출하고 있다. 이어서 꽃과 대나무 속에서 한가로이 읊조리는 모습을 거꾸로 ‘꽃과 대나무가 한가로운 읊조림에 속했다’라고 표현한 점이 기발하다. 함런은 강산(江山)과 화죽(花竹)이 원경(遠景)과 근경(近景)으로 대구가 잘 이루어져 있다. 경련에서는 앞서 살펴본 작품과 마찬가지로 시와 술을 이용하여 대구를 이루고 있다. 시를 짓는 것을 ‘시벽을 즐긴다(耽詩癖)’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시가 있으면 술이 빠질 수 없다. 질병 요양 때문에 별서에 내려왔으

18) 김성우, 「15세기 중·후반 훈구관료 서거정의 관직생활과 그에 대한 평가」, 『大邱史學』 83, 대구사학회, 2006, p.92.

19) 〈盧宣城宅梅花詩四十首〉(「시집」 권 41)에서 “눈은 진작 어른어른해 깜깜한 걸 어찌할고(花曾翳眼奈梅梅).”라고 하였다.

므로 주잠(酒箴)의 경계를 지켜야 하지만, 서거정은 개의치 않고 술을 마신다. 벽통주는 연잎에 술을 담아 잎과 줄기 사이를 뚫어 줄기 끝에 입을 대고 빨아 마시는 술이다. 함께 마실 사람이 없으므로 자작(自酌)할 필요가 없는 벽통주를 마신다는 뜻이다. 젊은 시절에 서거정은 많은 벗들과 시를 주고받고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 하지만 그러한 벗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자신 또한 늙고 병이 들자, 서거정은 고독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와 술에 탐닉함으로써 고독감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다음 작품을 보자.

헛된 이름 오십 년을 누려 온 끝에  
 문득 희어진 머리털이 두려워라  
 중산처럼 교유할 사람은 드물고  
 문원처럼 소갈병도 깊어만 가네  
 꿈이면 방초의 시구를 찾고  
 취하면 석화음을 짓기도 하는데  
 천지간에 지기지우는 드물고  
 밤마다 거문고에 달만 가득하네

虛名五十載  
 却怕二毛侵  
 中散交遊少  
 文園渴病深  
 夢尋芳草句  
 醉賦惜花吟  
 天地知音寡  
 宵宵月滿琴

〈虛名〉(「시집」 권 51)

‘헛된 이름이 오십년’이라는 말은 서거정이 25세에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50년 가까이 관직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모(二毛)’는 흰 머리를 뜻하는데 흰 머리가 늘어가는 것을 느끼고 자신이 늙었음을 깨닫는다. 중산(中散)은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혜강(嵇康)을 가리키고, 문원(文園)은 사마상여를 가리킨다. 함련에서는 소갈병이 심해지는 가운데 교유할 사람이 적어지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시에 탐닉하여 꿈에 서까지 방초구(芳草句)<sup>20)</sup>를 찾고 취해서는 석화시(惜花詩)를 짓는 것이다. 미련에서는 달이 거문고에 ‘가득하다(滿)’라고 말함으로써 서거정이 병중에 느끼는 공허감과 대비를 이루면서, 제목인 ‘虛名’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20) 방초구는 송나라 시인 사령운(謝靈運)이 꿈에서 ‘池塘生草木’이라는 시구를 얻고 만족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명작을 의미한다.

#### IV. 전원(田園)에의 동경

서거정은 노년기인 성종 연간에 이르러 병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였다.<sup>21)</sup> 그러나 성종의 윤허(允許)를 받지 못하여 귀전원(歸田園)의 바램은 그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노년기에 서거정은 귀전원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성 안의 집에서 한가히 혼자 지내면서 작은 정원을 가꾸고 채소를 재배하며 시간을 보내었다. 가지, 오이, 결명(決明) 등을 소재로 한 시들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서거정은 사가원(四佳園)이라는 인공의 전원을 만들어서 귀전원의 생활을 대신하였다. 그리고 실제 귀전원을 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삶이나마 기뻐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 작품을 보자.

백발의 신세에 질병이 얽히고설킨 터이니	白頭身世病纏綿
채소 농사 배워서 내 장차 만년을 즐기련다	學圃 <sup>23)</sup> 吾將喜晚年
열일곱 종류 중국 채소가 눈앞에 가득해라	十七唐蔬口滿眼
전원을 돌 때도 기뻐 미칠 것만 같으리	巡園亦復喜狂顛

〈謝姜晉山<sup>24)</sup>寄唐蔬十七種〉(「시집」 권 40)

서거정이 63세(1482)경에 지은 작품이다. 기구(起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년에 갖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얽히

21) 『성종실록』 13년(1482) 1월 30일, 16년(1485) 7월 15일에 병으로 인해 사직을 청한 기록이 있다.

22) 〈紫茄〉, 〈黃瓜〉, 〈決明嘆〉(「시집」 권 40).

23) 송나라 조사수(趙師秀)의 〈설씨과려(薛氏瓜廬)〉시에 “내 인생은 이미 늙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채소 농사를 배우기는 그대만 못하리라.(吾生嫌已老, 學圃未如君)”라고 하였다.

24) 晉山君 姜希孟(1424~1483)을 가리킨다. 서거정과 비슷한 시기(서거정은 1444년 식년문과에 급제, 강희맹은 1447년 별시문과에 급제)에 관직에 나섰고, 세조의 왕위찬탈에 대한 정치적 행로를 같이 하였다. 서거정과 강희맹은 세조 12년(1466)에 있었던 등준시와 발영시에 함께 합격한 동년(同年)이기도 하였으며, 서거정은 강희맹과 시로써 수장을 많이 하였다.

다'라는 뜻의 두 단어纏, 綿를 병렬로 배치하여 온갖 질병이 얽히고 설킨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거정은 채소 농사를 배워서 만년을 즐기려고 한다. 이와 같이 서거정이 여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시기에 그가 조정에서 그다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sup>25)</sup>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知人)이 중국 채소(唐蔬) 종자를 보내오자 그는 매우 기뻐한다. 전구(轉句)에서는 그러한 기쁨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구(結句)에서는 채소 종자들을 심을 전원을 둘러보면서 또다시(亦復) 미칠 듯이 기뻐한다. 비록 완전한 귀거래의 삶은 아닐지라도, 병중에 서거정이 얼마나 전원에서의 삶을 갈구하는지 느낄 수 있다.

서거정은 위의 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에서 부족하나마 전원생활을 영위하려고 하였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다음 작품을 보자.

늙고 병들어 많은 시간 고향을 생각했는데	老病多時憶故鄉
그대를 보내려니 생각이 다시 아득해지네	送君時復思茫茫
세 칸 텃집은 예전에 일찍이 부서졌고	三間茅屋昔曾破
두어 이랑 자갈밭은 지금도 묵어 있다네	數頃石田今亦荒
북산의 원조는 응당 서글피 바라보지만	猿鳥北山應悵望 <sup>26)</sup>
남국의 농어도 완전히 잊지를 못했거니	鱸魚南國未全忘 <sup>27)</sup>

- 25) 「시집」 권 40에서 이 시 바로 다음 작품이 ‘병조관서에서 막 해면되어 다시 봉군으로 한가로운 가운데 짓다’〈初解兵曹復封君閑中有作〉인데 제목에서도 실직(實職)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거니와 시 안에서 “병이 많아서 병 때문에 사직하였고, 한가함 찾아 비로소 한가함 얻었네(多病因辭病, 求閑始得閑)”라고 하였다.
- 26) 원조(猿鳥)는 원숭이와 학을 가리킨다. 남제(南齊) 때 공치구(孔稚圭)가 북산이문(北山移文)을 지었는데, 그 내용의 대략에 일찍이 북산에 은거하다가 변절하여 벼슬길에 나간 주옹(周顛)을 몹시 책망하며 “혜초 장막은 텅 비어 밤 학이 원망하고, 산중 사람이 떠나가매 새벽 원숭이가 놀란다.(蕙帳空兮夜鶴怨 山人去兮曉猿驚)”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원숭이와 학은 곧 깊은 산중 은자의 처소를 의미한다.
- 27) 진(晉)나라 때 문인 장한(張翰)이 일찍이 낙양(洛陽)에 들어가 동조연(東曹掾)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을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고향인 강동(江東) 오중(吳中)의 순채국과 농어회를 생각하면서 “인생은 자기 뜻에 맞게 사는 것이 귀중하거늘 어찌 수천 리 타관에서 벼슬하여 명작(名爵)을 구할 수 있겠는가.” 하

가을바람이 불거든 내 종이 돌아가서                      秋風準擬好歸去  
오두를 찾아서 함께 읊고 마시고 싶구려                      索共遨頭一詠觴

〈送韓參議以安胎使歸大丘〉(「시집」 권 46)

서거정이 65세(1484)경에 지은 작품이다. 서거정은 대구가 고향인데, 29세(1448)에 대구를 방문한 이후로<sup>28)</sup> 대구를 방문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수련에서는 서거정이 병중에 고향 생각을 자주 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인(知人)이 대구로 내려가게 되자 더욱 고향 생각이 간절해진다. 함련에서는 부서진 뗏집과 황폐해진 밭을 제시함으로써, 오랫동안 전원생활을 할 수 없었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경련에서는 고사를 활용하여 귀전원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는 귀전원에 대한 의지를 표출한다.

위의 작품에서와 같이 서거정은 고향에서의 전원생활을 매우 갈망한다. 하지만 수차례 올린 사직서가 윤희를 받지 못하자, 고향에서의 전원생활을 더욱 그리워한다. 다음 작품을 보자.

일생 백 년의 세상일은 이미 불우한 데다                      百年世事已蹉跎  
쇠하고 병들어 백발이 성성함을 어찌하랴                      衰病其於白髮何  
고향 전원을 서글피 바라만 보고 가진 못하나                      悵望故園歸不得  
타관의 벼슬살이에 집 생각 안한 날 없었네                      宦遊無日不思家

〈次曹咸陽韻〉其五(「시집」 권 51)

서거정이 69세(1488)에 지은 작품이다. ‘차타(蹉跎)’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 많아짐’을 뜻하는 단어이다. 서거정은 기구와 승구에서 귀전원하지 못하고 이미 늙고 병든 것을 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향 전원을 마음 아파하며 바라보기만 하고 가지 못하니, 집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고 술회하고 있다. 앞의 작품과 비교하였을 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향(思鄉)과 귀전원의 의지가 더욱 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서거정은 사망하던 69세 무렵에 지은 시들에서 칠순이 되면 치사(致仕)하

고 마침내 수레를 명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던 데서 온 말이다.

28) 「시집」 권 2에 〈將大丘親踰烏嶺〉이라는 시가 있다.

고 귀전원할 것임을 여러 차례 표출한다. 〈칠순(七旬)〉(「시집」 권 50)에서는 “지금부터 기뻐라 명년엔 의당 사직하고, 푸른 물결 갈매기와 강호에서 늙을 일이(預喜明年當致仕, 蒼波白鳥老江湖)”라 하였고, 〈送盧大司成乞退還鄉〉(「시집」 권 52)에서는 “칠십이 되는 명년엔 의당 치사를 할테라, 지금 그대 보내려니 생각이 아득하구려(七十明年當致仕, 送君今復思悠悠)”라 하였다. 하지만 서거정은 자신이 살아서 귀전원하지 못할 것임을 예견했던 듯하다. 다음 작품을 보자.

연래엔 노병이 몹시 서로 침범하는지라	年來老病苦相催
앉아서 매화 마주하여 한바탕 웃어대네	坐對瑤花一笑開
머리는 온통 쑥대강이라 왜 그리 까칠한지	蓬已渾頭何草草
눈은 진작 어른어른해 깜깜한 걸 어찌할꼬	花曾翳眼奈梅梅
술은 약속이 있는 듯 입을 벌려 들이키고	酒如有約能開口
시는 비록 무심하나 환골탈태도 한다네	詩縱無心亦奪胎
듣건대 서호 가엔 쓸모없는 땅이 있다 하니	似說西湖有閑地
살아서 못 감은 부끄러우나 죽어서는 묻히려다	生慙不去死當埋

〈盧宣城宅梅花詩四十首〉其四十(「시집」 권 41)

서거정이 63세(1482)에 지은 작품이다. 수련에서는 병중에 매화를 완상하는 모습을 표출하였다. ‘일소(一笑)’는 ‘한바탕 웃다’라는 뜻인데, ‘깎보아 웃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므로 지금은 매화가 싱싱하게 피어 있지만 며칠 뒤에는 병든 자신처럼 시들 것임을 중의적으로 표현하였다. 함련에서는 늙고 병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련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병중에서도 시와 술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미련에서는 매화와 학을 사랑하여 ‘매처학자(梅妻鶴子)’라 불린 임포(林逋)를 떠올리고 있다. 임포는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서 은거해 살았는데, 서거정 또한 사직하고 귀전원하려는 의지를 임포의 고사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해 1월에 서거정은 병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성종의 윤험을 받지 못하였다. 이미 환갑을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치사(致仕)하지 못하고 관직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서거정은 ‘살아서는 못가나 죽어서는 묻히려다’ 라고 귀전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 V. 웃음을 통한 극복

서거정은 노년기에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병중에 있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독감을 표출하면서 내면 세계로 침잠하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자신의 처지를 웃음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 작품을 보자.

서쪽 이웃 그대는 다릿병을 앓고  
 동쪽 마을 나는 비위를 상하였네  
 무슨 일로 백화만발한 이 시절에  
 두 술잔에만 술이 비었다단 말인가

西隣君病脚  
 東里我傷脾  
 有底百花節  
 都無二酒卮

〈病吟寄子固〉(「시집」 권 41)

서거정의 한시 중에서 연작시를 제외하고는 흔치 않은 오언절구의 형식이다. 시가 짧은 만큼, 교유하던 벗에게 보내는 짧은 쪽지의 느낌이 물씬 난다. 기구와 전구에서는 서쪽과 동쪽, 그대와 나, 다릿병과 비위병을 대응시켜 효과적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 전구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마지막 절구에서는 ‘두 술잔에만 술이 비었다’라고 함으로써 자신과 벗이 좋은 시절에 병으로 인해 술을 마시지 못함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서거정은 젊어서부터 가무(歌舞)를 즐겼지만,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즐길 수 없음을 장난스럽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젊어서는 화려한 가무 놀이에 익숙했더니  
 곤궁하고 병들어서 늙은 몸을 어찌할거냐  
 아이들 손뼉 치며 웃는 꼴 많기도 당하련만  
 다행히 귀는 안 들리고 눈도 어른어른하네

少年歌舞慣繁華  
 落托支離奈老何  
 羸被兒曹拍手笑  
 耳猶重聽眼猶花

〈嘆老〉(「시집」 권 42)

기구와 승구에서는 젊은 시절 가무를 즐기던 것과, 현재는 병들고 늙어서

그럴 수 없음을 대비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거정은 가무를 즐길 것임을 익살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노쇠하여 가무를 잘 못하여 아이들의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자신은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도 침침하여 거리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서거정의 지위를 생각해보면, 세상살이를 아는 어른의 경우 서거정이 아무리 늙고 병든 촌로(村老) 같아도 쉽게 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아이들이다. 다음 작품을 보자.

어느 날 아침 병을 무릅쓰고 문전에 나가	一朝扶病出門前
남여에 잠깐 앉아 두 어깨를 으쓱였더니	小坐籃輿聳兩肩
길에 가득한 아동들이 마구 박수를 쳐 대네	滿路兒童渾拍手
이 노인의 확실 <sup>29)</sup> 함이 전년보다 갑절이라고	此翁矍鑠倍前年

〈病中閑坐戲吟三首〉其二(「시집」 권 52)

병들어 바깥출입을 삼가다가, 답답한 마음에 마당에 있는 가마에 앉아 몸을 움직이니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작년보다 날쌔졌다고 놀리며 박수를 치고 있다. 시가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서거정의 심정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심정은 분명 슬픈 심정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서거정은 병든 자신의 처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서거정은 병든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희화화하며 만족하기도 하였다.

앉은뱅이라 앉는 데는 능하기에	病躄工能坐
머리 붙들고 편안히 잠도 이루네	扶頭穩作眠
청운 길에 활보하기는 어려우니	靑雲難闊步
뿔집에 깊이 숨는 게 마땅코말고	白屋合深跼
발 날쌔 준마 못 된 건 부끄럽지만	健足慙非馬
가부좌한 꼴은 스님과 다름없네	加趺酷似禪
어찌 위험한 곳을 밟을 수 있으랴	履危那可得

29) 원기가 왕성하고 몸이 날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의 명장 마원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자, 황제가 ‘확사하도다, 이 늙은이여.’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끝내 재앙에 빠지는 건 면하겠지

終免蹈禍權

〈病覽〉(「시집」 권 52)

서거정이 사망하던 해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수련에서는 병을 치료하려는 의지보다는 병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장난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병이 깊어서 더 이상 관직생활을 하기 어려워 집에 거처함을 드러내고 있다. 경련에서는 서지 못하여 항상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부좌한 스님’에 비유하여 스스로 회화화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 오히려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순탄하게 관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즉, 병사(病死)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험한 죽음을 모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서 병에 걸린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VI. 결론

본고에서는 서거정 문학에서 그 동안 연구되었던 응제시, 수창시, 영물시 등 주제별 분류를 벗어나서 병중 정서를 드러내는 한시를 통해 서거정의 내면세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병중 정서를 드러내는 한시들은 관각문인의 대가로서 서거정의 모습보다는 갖은 질병에 시달렸던 인간으로서 서거정의 내면세계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특징은 네 가지로 대별(大別)된다.

첫째, 고독감의 표출이다. 서거정이 노년기에 병을 앓으면서 고독감을 느낀 이유는 젊은 시절부터 그와 교류했던 벗들이 대부분 사망하여 교류할 사람이 적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서거정은 69세까지 살았는데, 조선 임금의 평균 수명이 약 47세인 것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장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독감에 대한 대응은 내면세계로 침잠하는 것이었다.

둘째, 시와 술에의 탐닉이다. 서거정은 젊은 시절부터 시와 술을 매우 즐겼는데, 병중에서도 변치 않고 시주를 즐겼다. 이와 같이 병중에 시와 술에

탐닉한 것은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였다. 병중에 시와 술에 탐닉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시들은 대부분 한 연(聯) 안에서 시와 술로 안팎과 바깥쪽의 대구를 이루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전원예의 동경이다. 노년기에 서거정은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수차례 사직을 청하였으나 성종의 윤허를 받지 못하여 귀전원의 꿈은 좌절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부족하나마 정원을 가꾸며 귀전원의 생활을 대신하기도 하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를 시를 통해 표출하였다.

넷째, 웃음을 통한 극복이다. 서거정은 만년에 자신의 병든 상황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이 점차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이를 슬퍼하기보다는 노병(老病)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며 웃음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병중 정서를 드러내는 서거정 한시의 특징을 개괄해보았다. 서거정의 병중 정서가 위의 네 가지 특징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노년기 작품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서거정의 병중 정서가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고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거정의 병중 정서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차후의 연구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여 서거정과 동시대에 살았던 조선의 관료 문인들이 병중에 어떠한 정서를 표출하였는지 서거정과 비교해 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이종묵 외, 『徐居正 文學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임정기 역, 『국역 사가집 1~10』, 민족문화추진회, 2004.

### 2. 논문

- 강민구, 「조선 관료문인의 직무스트레스와 반응의 문학적 표출양상 - 서거정의 경우」, 『한문교육연구』 34,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김성우, 「15세기 중·후반 훈구관료 서거정의 관직생활과 그에 대한 평가」, 『大邱史學』 83, 대구사학회, 2006.  
민병수, 「서거정의 시세계」, 『서거정 문학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박성순, 「사가 서거정의 시문학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89.  
송희준, 「사가집 해제」, 『국역 사가집 1』, 민족문화추진회, 2004.  
이민용, 「서거정 茶詩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11.  
최명규, 「서거정과 그의 한시 연구 - 절구를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1.  
이종건, 「서거정 시문학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4.  
이종묵, 「서거정의 삶과 문학 활동」, 『서거정 문학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